NH투자증권

한국 주식 급락 코멘트

높았던 기대감 실망한 시장

Analyst 나정환, CFA 02)768-7783, simon.na@nhqv.com

높아진 실적 눈높이를 하회한 실적에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

- **팩트**: 7월 25일(한국시간) 전일 미국 나스닥 지수가 3.6% 급락하면서 한국 주식 시장에서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도세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2% 가까이 하락.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6,000억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을 주도

- 급락 이유 1) 빅테크 기업의 AI 수익화 지연 우려. 알파벳의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함. 다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으나, AI를 활용한 수익화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자자들은 매도로 대응.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2분기 매출 16.4조원, 영업이익 5.4조원으로 실적 호조를 기록했으나, 장중 8% 가까이 하락 중. SK하이닉스 역시 AI 산업의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 수익화에 대한 의구심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

- 2) 외국인 자금 이탈. 외국인 투자자는 IT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계 및 금융 업종에서도 순매도세를 기록 중. 최근 두산 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에 대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금융감독원은 결국 합병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명령. 두산 그룹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및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 신뢰성 논란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두산 관련주 및 금융 업종도 순매도하는 모습. 이에 두산 관련주는 장중 10% 가까이 하락 중

- 3) 한국 경제 지표 부진. 한국 2분기 GDP 성장률 전년대비 2.3% 증가, 전분기대비 0.2% 감소하여 QoQ 역성장을 기록. 2분기 수출은 +0.4%p로 플러스(+) 기여도를 기록했으나, 향후 증가율 둔화 우려가 존재. 한국 수출과 연관성이 높은 미국 7월 제조업 PMI 지표가 49.5P로 위축 국면으로 진입. 동시에 국내 민간 소비 및 투자 부문이 둔화되면서 내수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도 한국 주가 지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 **시사점**: 트럼프 피격 및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등 정치적 이슈가 부각된 이후 최근 한국 주식 시장의 변동성 확대. 특히 트럼프 1기 당시 무역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일부 자금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음. SK하이닉스가 장중 8% 가까이 하락하는 등 높아진 실적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출회. 다만 일련의 주가 하락은 펀더멘털을 바꾸는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 실제로 알파벳은 분기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였고,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도 2018년 반도체 호황기 수준인 5조원대를 기록. 높아진 시장 참여자의 눈높이가 맞춰지는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 현재 코스피 주가는 후행 PBR 기준 0.98배로 1배를 하회. 실적 전망치는 유지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줄어들고 있음. 올해 연초 이후 코스피 지수는 전쟁이나 높은 물가 이슈로 인한 하락을 제외하면 0.97~0.95배 수준에서 저점을 형성한 바 있음(0.97배: 2,678P, 0.95배: 2,623P)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